

漁村 孔俯 研究

- 漁父歌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

박 규 홍*

<목 차>

- | | |
|-----------|------------|
| 1. 緒 論 | 4. 漁村과 漁父歌 |
| 2. 時代的 背景 | 5. 結 論 |
| 3. 漁村의 生涯 | |

1. 緒 論

‘漁父詞’ 혹은 ‘漁父歌’로 지칭되어 온 작품들은 그 나름대로의 동질성으로 명맥을 이어온 하나의 詩歌 樣式이다. 慧謚(1178-1234)이 宋詞의 형태로 <漁父詞>를 지은 이후 최초의 국문시가로서의 어부가는 알려진 바와 같이 『樂章歌詞』 소재의 <漁父歌>가 되겠다. 어부사 계통의 시가 작품은 대부분 작자가 밝혀져 있는데, 유독 『악장가사』의 <어부가>는 작자가 분명하지 않다.

李佑成은 漁村 孔俯(1352-1416)의 家系와 交遊 등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그가 善唱한 어부가가 『樂章歌詞』 소재의 <漁父歌>였으리라 추측하면서 그 작자는 孔俯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¹⁾ 어부가를 논한 이후의 여러 논문에서는 『樂章歌詞』의 <漁父歌>가 漁村의 작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는 편이었다. 송정숙은 어촌이 어부가를 창작한 시기를 1376년에서 1385년 사이로 추정하기도 했다.²⁾

* 경일대학교

1) 李佑成, 「高麗末・李朝初의 漁父歌」, 『논문집』(성균관대) 제9집, 1964, 20-21면.

2) 宋靜淑, 漁父歌系 詩歌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29면.

그러나 근년 어촌의 창작설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형대는 "현전자료를 볼 때 공부가 이 노래를 즐겨 불렀고, 그것을 들으며 작중세계에 몰입하여 감상을 창화시로 남긴 향유그룹이 존재했던 것은 실증이 되지만, 공부를 작자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김영돈을 포함하여 공부의 시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창작·보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³⁾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이제현의 활동기간과 공부 그룹에서 唱和詩가 나온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의종대에 궁중악에 수용된 민요체의 속악인 어부노래가 현전하는 <악장어부가>로 최종 정착된 시기는 공민왕·우왕년간의 어느 무렵이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呂基鉉은 그 <어부가>가 12장의 노래의 시의와 작품내 시공간성, 시적화자의 시각 등은 각기 다르거나 혹은 중첩되어 일관되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백공한 개인에 의하여 창작(集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어느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고인지영을 집구하여 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⁴⁾을 폈다.

어촌이 불렀던 어부가를 『악장가사』 소재의 <어부가>로 보는 데에는 별다른 異論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작자에 대해서는 이런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⁵⁾ 『악장가사』 소재 <어부가>의 작자를 단정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고, 앞으로도 그런 자료가 발견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전의 자료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무엇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악장가사』 <어부가>의 작자 논의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공부를 살필으로써 그를 좀더 이해하고, 아울러 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3) 李亨大, 「漁父形象의 詩歌史的 展開과 世界認識」,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7, 47-48면.

4) 呂基鉉, 「古典詩歌의 表象性」, 도서출판 월인, 1999, 73-74면.

5) 본고에서도 어촌이 불렀던 어부가가 『악장가사』 소재의 <어부가>와 동일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논지를 전개한다.

2. 時代的 背景

어촌이 생존했던 麗末 鮮初의 시대적 배경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어부사가 지어지고 향유된 고려말의 여건들이 어떠했는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우선 중국의 문물이 대거 수입되어 고려 사회에 영향을 끼친 점이 주목된다. 특히 많은 책이 유입되었는데, <翰林別曲>에 열거된 여러 書名은 당시 다양한 서적이 들어왔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唐漢書 老莊子 韓柳文集

李杜集 蘭臺集 白樂天集

毛詩 尚書 周易 春秋 周戴禮記

위 註조쳐 내 외온스景 古 엇더흐니잇고

太平廣記 四百餘卷 太平廣記 四百餘卷

위 歷覽스景 古 엇더흐니잇고 (<한림별곡> 8-2)

중국의 많은 서적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여러 기록으로 확인된다.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선사받은 돈과 비단은 수행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책을 사가지고 돌아왔다”⁶⁾는 언급이나, “判典校 洪瀾은 太子府參軍으로 남경에서 금은화폐 150덩이를 내어 經籍 1만 8백권을 사게 해가지고 돌아왔다”⁷⁾는 등의 기록은 당시 서적 수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 예가 되겠다.

이렇게 유입된 서적을 통하여 중국의 많은 문학작품과 문인들이 우리 나라에 소개되었고, 唐宋의 뛰어난 문인들이 고려 문사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學士 李肩叟[李仁老]가 말하기를 문을 닫아 걸고 깊이 틀어박혀서 黃山谷·蘇東坡의 두 시문집을 읽은 뒤에 말이 힘차고 운이 유창해져서 시를 짓는 요결을 얻었다.”⁸⁾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특히 고려 문사들이 東坡(1307-1101)의 글

6) 奉使人宋 所賜金帛 分與從子 餘悉買書籍以歸(『高麗史』 권95, 列傳 제8, ‘鄭文’).

7) 「增補文獻備考」 권242.

8) 李學士肩叟曰, 杜門讀黃蘇兩集, 然後言邇然韻鏘然, 得作詩三昧(崔滋, 「補閑集」 卷中 46)

을 애독하여, 매년 과거의 방이 나붙으면 사람마다 올해는 동과 30명이 나왔다⁹⁾고 할 정도였다고 하니 동과에 대한 관심이 선풍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문학과 함께 음악 또한 대거 유입되어 고려에 영향을 끼쳤다. 고려 광종 때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어 당악기 및 공인을 청한 바 있다. 이 당악은 자손들이 세습했는데, 충렬왕 때는 김여영, 충숙왕 때는 得雨가 각각 장악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당악이 들어왔는가 하면, 宋朝에서는 教坊樂이 들어오고, 다시 睿宗代에 이르러서는 송의 新樂과 大晟雅樂이 수입되어 고려 악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예종대에 들어온 중국의 아악 역시 고려음악사상 특기할 만한 일의 하나라고 한다.¹⁰⁾ 11세기 말엽에는 <坐立部伎>에 속하는 教坊樂인 이른바 <唐樂>이 고려에 전해진 뒤부터 고려에서는 <당악>의 가사인 중국의 詞문학과 접촉하게 되었고, 고려의 대사인 이규보는 당악 가무극에 익숙했던 모양으로 음악과 관계되는 <口號> <致語> <句合曲> 등 樂語를 짓기도 했다.¹¹⁾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수백 년간 누적된 당·송의 수천 수백 개의 詞調¹²⁾ 중 상당수가 고려조에 전해졌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사패의 하나인 ‘漁家傲’가 전래되고, 張志和의 <漁歌子>나 이에 調語를 보탠 소동파의 <浣溪沙> 등의 노래가 유입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이러한 사패나 어부사 작품은 우리의 漁父詞 생성에 영향하게 된다.¹³⁾

1170년의 武臣亂과 그 이후 100년간의 무신정권, 그리고 그 사이의 元의 침공은 고려 왕조 붕괴의 요인으로 잠복하고 있었다. 무신정권의 뒤를 이은 권문세족들은 대륙의 정세변화와 왜구의 침입 등에 적절히 대처하여 고려를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性理學은 기울어가는 나라를 일으킬

9) 方今爲詩者 尤嗜讀東坡之文 故每歲榜出之後 人人以爲 今年又三十東坡出矣(李奎報, 『東國李相國集』, 『答全履之論文書』)

10) 張師勛, 韓國音樂史, 『韓國文化史大系VII』,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2(3版), 989-990면.

11) 韋旭昇 著, 李海山·禹快濟 共譯, 『韓國文學에 끼친 中國文學의 影響』, 亞細亞文化社, 1994, 14면.

12) 吳熊和 著·李鴻鎮 譯, 『唐宋詞通論』, 啓明大學校 出版部, 1991, 232면.

13) 朴奎洪, 漁父詞의 形成 研究, 『時調學論叢』 제15집, 韓國時調學會刊, 1999, 69-91면 참조.

유일한 정신적 대안으로 차츰 부상하게 되고, 李齊賢·鄭夢周·李穡·鄭道傳·權近과 같은 많은 저명 理學者들이 배출된다.

이러한 시기,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理學은 고려 사회의 변화는 물론 고려 왕조에 종지부를 찍게 하는 동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儒學을 받아들인 고려 문사들의 사상적 성향은 佛·道에도 대체로 관대했다. 궁극에는 斥佛崇儒로 가게 되지만, 麗末의 儒者들이 승려들과의 격의 없는 교류를 나눈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麗末 三隱의 한 사람으로 鄭夢周·金九容·朴尙衷 등과 함께 明倫堂에서 성리학을 흥성시킨 주역이었던 陶隱 李崇仁(1347-1392)이 <寄仁興寺>나 <送僧南歸> <憶昔寄隱峰禪師> 등 절이나 승려와 관련된 여러 시를 남긴 것은 그러한 예가 된다고 하겠다.

성리학과 함께 유입된 宋의 道教도 고려조에 영향을 끼쳤다. 송 휘종은 고려에 도사를 파견했고, 개성 북쪽에는 福源觀이 세워졌다고 한다.¹⁴⁾ 고려 문사들의 숭앙의 대상이었던 蘇東坡 등의 문학에 내재되어 있는 도교적 성향은 어떤 형태로든 고려조 문사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실의와 빈곤 속에서 깊은 좌절감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林椿이 儒·佛·道가 서로 배척될 것이 아님을 주창한 <送李肩叟序>¹⁵⁾와 같은 글은 儒·佛·道를 포용하는 데 별 문제를 느끼지 않은 고려 문사들의 사고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佛氏雜辨>을 쓴 삼봉도 程朱學의 한계를 佛教와 道教의 부분적 折衷을 통해서 극복하고, 심지어는 민간의 讖說까지 원용하여 보다 자유스러운 자기세계를 보여주었다¹⁶⁾고 한다. 역시 이 시대를 살았던 朝鮮朝의 太宗(1367-1422)도 도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드러내는데, 다음의 일에서 그의 도교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궁중에서 도마뱀으로 기우를 행하였다. 순금사 대호군 金謙이 말하기를, “전에 甫州 守令으로 있을 때 소동파의 시를 보니, ‘독 가운데 도마뱀이 참으로 우습다.’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그 註에 비를 비는 법이 갖추 실려 있으므로, 謙이 그 법에 따라 시험해서 과연 비를 얻었습니다.”하였는데,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이 날 김점을 불러 물어보고 곧 광연루 아래에서 시험할 것을

14) 韋旭昇, 앞의 책, 18면.

15) 林椿, 『西河集』 권5, <送李肩叟序>.

16)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改訂版), 259면.

명하였다. …(중략)… 이를 동안이나 빌었으나 비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동자들을 놓아 보내고 각각 쌀 1석씩을 주었다.¹⁷⁾

이 기우제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태종은 그 후에도 어촌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동남동녀를 거느리고 廣延樓나 上林園 등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했음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¹⁸⁾ 어촌이 도교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 시대의 분위기로 봐서 당연하다 하겠으나, 그는 도교에 대한 남다른 조예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고려 말에 불려진 어부가에 이 당시의 도교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수용되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龔巖이 어부장이 12장을 9장으로 刪改하면서 그 대본에 대해 “此非聖賢經據之文”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어촌의 도교에 대한 관심은 그의 생애를 다룬 다음 장에서 계속 논하기로 한다.

3. 漁村의 生涯

어촌의 조부 孔紹는 昌原 孔氏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공소는 원나라 順帝 때 한림학사로 임명되어 공민왕이 고려에 올 때 시종하였고, 그 뒤에 문하시랑평장사가 되었다. 昌原伯에 봉해진 뒤 원나라에 돌아가지 않고 우리 나라 공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¹⁹⁾ 그러나 牧隱 李穡(1328-1396)은 慶順注簿 孔伯共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선대에서 우리 나라에 벼슬하여 웅양상장의 지위에 오른 이가 있었고, 그 뒤에 끊어지지 않고 겨우 내려왔습니다.”²⁰⁾라고 했

17) 行蜥蜴祈雨于宮中。上聞巡禁司大護軍金謙。言前守甫州。見東坡詩。有瓮中蜥蜴真堪笑之句。注備載祈雨之法。謙依其法試之。果得雨。是日召謙問之。卽命試之於廣延樓下。…(중략)… 既二日不得雨。放童子各賜米一石(『太宗實錄』 권13, 7년 6월 癸卯)

18) 命檢校漢城尹孔俯。聚十二歲童男三十二人于廣延樓前禱雨。(『太宗實錄』 권21, 11년 5월 庚辰) 命禮曹。禱雨于山川諸神。又聚坐于白岳。盲人于明通寺禱之。召檢校漢城尹孔俯。蜥蜴祈雨于廣延樓下。(『太宗實錄』 권22, 11년 7월 庚午) 命檢校漢城尹孔俯。聚童男數十人。以蜥蜴祈雨于上林園。三日而罷。(『太宗實錄』 권26, 13년 7월 己卯)

19) 「한국인물대사전」, 정신문화연구원 편, 중앙일보 간, 1999.

20) 獨吾先世 入東韓 居陝之 滅陰縣 中國士大夫 無從而至也 我先世 仕本國 右位鷹揚上將者 其後子孫不絕如線(「牧隱集」 ‘伯共說’, 『韓國思想大全集· 牧隱集』, 李爽求 譯, 1988, 良友堂, 302-303면)

다고 하니 그의 선조가 우리 나라에 와서 정착한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겠다.

『朝鮮王朝實錄』에 “孔俯는 滅陰縣 사람인데, 字는 伯共이고 호는 漁村이다. 詩를 잘하고 더욱 草書와 隸書에 공교하여 그 필적을 얻은 자는 보화로 여겼다. 洪武 丙辰年(고려 禰王 2년, 1376)에 과거에 합격하여 차차방 필도치가 된 지 9년이고, 문서옹부사 별감제조가 된 지 30여 년이었다.”²¹⁾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촌은 급제 후 시종 환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중 禮部摠郎을 저낼 때 말 1천 5백 필을 바치기 위해 明에 다녀 온 것²²⁾을 비롯하여 조선조 仁寧府尹 때 賀千秋使로 京師에 가서卒하기까지 여러 차례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촌은 도교에 일가견이 있었고, 도교에 관심이 많았던 태종에게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다. 태종 8년, 태종은 영안군 양우와 여친군 민여익을 사은사로 보내면서 당시 검교 한성윤이었던 공부를 서장관으로 삼아 동행하게 했다. 평소 별호를 修仙이라 한 공부로 하여금 중국 道家의 醮祀法을 배워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²³⁾ 이후에도 태종은 공부로 하여금 12세 童男 32명을 데리고(태종 11년 5월), 혹은 도마뱀으로(태종 11년 7월) 광연루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고, 童男 수십 인을 모아 도마뱀으로써(태종 13년 7월) 상림원에서 비를 빌도록 시키기도 하였다.²⁴⁾

심지어는 父喪을 만나 미처 상제를 끝마치지도 않은 그에게 쌀 3석을 하사하고 탈상하여 알현할 것을 명하기도 하였는데, 修眞의 일을 묻고자 함이었다고 한다.²⁵⁾ 太宗 16년, 仁寧府尹이었던 어촌이 賀千秋使로 경사에 가서 客死하였는데, 實錄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21) 俯滅陰縣人。字伯共。自號漁村。善爲詩。尤工草隸。得其筆蹟者。以爲寶。中洪武丙辰科。爲筭了房。必開赤者九年。文書應奉司別監提調者三十餘年。(『太宗實錄』 권32, 16년 10월 乙丑)

22) 已未 遣判繕工寺楊天楨 禮部摠郎孔俯等 如京師獻馬一千五百匹(『高麗史』 권46, 世家 제46, 恭讓王 2年)

23) 遣寧安君良祐。驪川君閔汝翼如京師謝恩也。以檢校漢城尹孔俯爲書狀官。…(중략)… 俯素號修仙。上意欲其學中國道家醮祀之法而來也。(『太宗實錄』 권16, 8년 10월 경진)

24) 주 17) 참조.

25) 賜檢校漢城尹孔俯米三石。俯丁父喪。未終制。上遣司諫傳旨曰。卿老成當與議事。宜除喪以見。蓋欲問其修眞之事也。(『太宗實錄』 25권, 13년 4월 癸丑)

오직 도가를 몹시 좋아하여서 병이 심하자, 道士를 청하여 醮祭를 베풀었는데, 命燈이 꺼지매 도사가 탄식하기를 ‘병이 낫지 못하겠다.’ 하였다. 뼈를 태우자 갑자기 풍우가 급히 이니, 사람들이 모두 이상히 여기었다.²⁶⁾

이처럼 도가에 남다른 관심과 취향을 가졌던 어촌이었지만 陽村 權近(1352-1409)·三峰 鄭道傳(1342-1398)·圃隱 鄭夢周(1337-1392) 등 麗末 鮮初의 대표적 儒者들과 두터운 교분을 나누었다. 특히 양촌과는 동갑으로 매우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다. 양촌은 “어촌은 나의 벗 孔伯共의 自號이다. 백공이 나와 동갑이나 생일이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風神이 소탕하고 명랑하여 親愛함직한데...”²⁷⁾라고 하여 서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임을 밝히고, 비록 벼슬살이를 하고는 있으나 강호에 뜻을 둔 어촌의 삶의 태도를 소개하면서 “내가 듣고서 좋게 여기고, 따라서 記를 지어 주고, 또한 나 자신도 두고 보려 한다.”고 하고 <漁村記>(禡王 11, 1385)를 썼다.

<漁村記> 외에도 양촌은 麟州의 壁上에 걸린 어촌의 시에 차운을 하거나, 西北面으로 가는 어촌을 보내는 절구 세 수를 짓는 등 어촌과 관계된 몇 수의 시를 남기고 있다.

<次麟州壁上孔伯共韻>²⁸⁾

門前朝日馬嘶鳴 이른 아침 문 앞에 말울음은 퍼지고
道指松京似砥平 송경으로 가는 길은 솟돌같이 반반하네
駟路往還身自老 역마길 왔다갔다 몸도 절로 늙으니
悠悠南北寄此生 머나먼 남북에 내 생애를 맡겼다오

26) 惟酷好道家. 及病請道士設醮. 而命燈滅. 道士嘆曰. 不起矣. 既燒骨. 忽風雨驟至. 人皆異之. (『太宗實錄』 32권, 16년 10월 乙丑)

27) 漁村. 吾友孔伯共自號也. 伯共與余生年同. 月日後. 故余弟之. 風神疎朗. 可愛而親... (權近, 『陽村集』 권11, <漁村記>)

28) 『陽村集』 권5.

<送孔伯共俯赴西北而三絕>²⁹⁾

岬嶺空山載白雲 기령이라 공산에 흰 구름 얹혀 있고
 茫茫南北路岐分 남북은 아득아득 길이 서로 나뉘었네
 歌姬解唱清新句 노래하는 고운 계집 시창마져 불러대니
 却向離筵不忍聞 이별의 자리라서 차마 듣지 못할래라
 (自註: 백공이 일찍이 평양의 歌妓를 위하여 시 한 절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전하여 短歌로 되었다. 위의 절구는 그 뜻을 기술한 것이다. 自註. 伯共嘗爲
 平壤歌兒作詩一絕. 至今傳爲短歌. 上句述其意也.³⁰⁾)

양촌과 몇몇의 동류가 함께 어울려 비를 무릅쓰고 배를 띄워 뱃놀이를 한 일도 있음을 다음의 시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어촌은 <탁영가>를 불렀다고 하고 있다.

<是日與諸公冒雨泛舟>³¹⁾

諸公招邀江樹林 강변이라 숲 속에 벗님들 모여드니
 烟波渺渺天垂陰 연파는 아득아득 하늘은 그늘졌네
 霏微雨氣涼滿襟 가랑비 부슬부슬 가슴 속이 후련하니
 超然自有蓬瀛心 선경이 여기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
 披蓑上船扣舷吟 도롱이 입고 배에 올라 뱃전 치며 읊조리니
 瓮有白酒相酬酢 주거니 받거니 동이술 넘실넘실
 伯共瀟灑懷好音 백공의 맑은 모습 좋은 소리 지냈어라
 高歌濯纓聲出金 탁영가 불러대니金石을 울리는 듯
 長江岸瀾輕霧沈 강은 길고 독은 넓고 물안개 잠겼는데
 澹粧窈窕山橫簪 묶은 단장 곱고곱다 먼 산이 비끼었네

29) 「陽村集」 권5.

30) 이 自註는 어촌이 작사자로서의 능력을 다른 측면에서 입증하는 하나의 예가 된다고 하겠다.

31) 「陽村集」 권5.

隨潮北上又下南 밀물 따라 올라가다 되돌아 내려오니
 綠波如拭滄澄深 닦은 듯 푸른 물결 깊을수록 맑네
 江山自古人自今 강산은 예 그대로 사람은 이제라서
 眼中往事猶蕭森 눈을 스친 지난 일 상기도 삼삼하이
 樂極哀來不可禁 흥이 사뭇 겨우면 슬픔이 오는 거라
 頭上歲月常駸駸 머리 위 세월은 언제나 덧없거든
 風塵世路何巖峯 풍진 속의 세상 길 어찌나 험난한지
 安得忘機飄蕩如沙禽 어느 제나 훨훨 나는 저 갈매기 짝이 되리

어촌과 양촌, 두 사람 사이가 돈독함은 다음 三峰 鄭道傳이 써 준 <題漁村記>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아울러 삼봉도 이 두 사람과 예사 교분이 아님을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다.

대개 어촌을 즐기는 자는 백공이요, 백공의 즐거움을 즐겨워하는 자는 가원인데, 도전은 백공의 어부사를 듣고 가원의 어촌기를 읽으면 유연히 마음이 합하는 것이 있으니, 나는 능히 두 사람의 즐겨워 하는 바를 즐겨워한다 일러도 또한 옳을 것이다. 아, 이 몸을 천지 사이에 두고보니 아득한 푸른 바다의 좁쌀 한 알이로다. 마땅히 두 사람과 더불어 이 세상을 뜬구름같이 보고 강호에 빈배같이 지내리라.³²⁾

어촌을 즐기는 자는 어촌으로 자호한 백공이요, 그 백공의 즐거움을 즐겨워하는 자는 가원[權近의 字]이고, 삼봉은 이 두 사람의 즐겨워하는 바를 즐겨워한다고 하니 공부의 삶의 태도를 존중하는 나머지 두 사람과 그로 인해 서로가 나누는 교분의 두터움을 짐작케 한다. 삼봉은 또 다음과 같은 시로 어촌이 노래하는 어부사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어촌의 漁父詞卷中에題한 시다.

有翁有翁身朝衣 관복을 입은 늙고 늙은이가 있어

32) 夫樂漁村者伯共也, 樂伯共之樂者可遠也. 道傳聽伯共漁父詞, 讀可遠漁村記, 有悠然而會於心者, 謂予能樂二者之樂亦可也. 嗟呼俯仰此身, 滄海一粟, 當與二者, 浮雲乎斯世, 虛舟乎江湖(「東文選」 제103권, 題漁村記後)

半酣高歌漁父詞	반쯤 취한 취흥에 어부사를 높이 부르네
一曲起我江海思	첫째 곡은 나에게 강과 바다 생각을 떠올리고
二曲坐我蒼苔磯	둘째 곡은 나를 푸른 이끼 낀 낚시터에 앉히며
三曲泛泛迷所之	셋째 곡은 두둥실 갈 곳을 알 수 없네
白沙灘上伴鷗鷺	백사탄 위의 가마우지를 짝하고
紅蓼洲邊同鷺鷥	홍료주 가의 해오라기와 함께 하네
雲煙茫茫雪霏霏	구름 연기 아득하고 흰눈은 펄펄
水面鏡淨風漣漪	거울 같이 맑은 물위를 바람이 일렁이고
綠蓑青簑冒雨披	녹사(綠蓑)와 청약(靑蓑)으로 비를 피하네
短棹輕槳載月歸	짧은 노와 가벼운 상앗대를 저어 달빛을 싣고 돌아오니
興來閒捻一笛吹	흥겨워 한가로이 피리 잡아 한 곡조를 부네
往往和以滄浪辭	자주 자주 창랑사로써 화답하니
數聲激烈動江涯	몇 가닥 소리 격렬하여 강가를 울리네
恍然四顧忽若遺	황홀해서 사방을 둘러보니 갑자기 잃어버린 듯
高歌未終翁在茲	높은 노래 끝나지 않았는데 늙은이는 이곳에 있네 ³³⁾

청자로 하여금 홀연히 강호의 세계로 안내하는 어촌의 탈속한 어부가의 세계를 읊고 있다. 양촌과 삼봉이 증언하고 있듯이 어촌은 비록 진세에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으나 그 뜻은 항상 강호에 있음을 스스로 확고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 양촌이 쓴 <漁村記>에 그런 어촌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어촌이] 하루는 나[양촌]에게 말하기를,

“나의 뜻은 고기 낚시에 있는데, 그대는 고기 낚는 낙을 아는가? 대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그와 같이 때 만나기를 기필할 수 없고, 임자룡은 어진 분이니 내가 감히 그와 같이 개결하기를 바랄 수는 없으나, 동자와 관자들을 이끌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삼아 이따금 낚싯대를 들고 쪽배를 노닐 하여 조류 따라 오르내리며 배 가는 대로 맡겨 두었다가, 깨끗한 사장에 배를 매거나 산수 좋은 川流에서 구운 고기와 신선한 회로 술잔을 들어 서로

33) 鄭道傳, 『三峰集』 권1 <題孔伯共漁父詞卷中>.

수작하다가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바람은 자고 물결이 고요할 때에는, 배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불고 노를 치며 높이 노래하고 흰 물결을 날리며 맑은 달빛을 헤치노라면, 호호히 마치 星舫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듯하다. 그러다가 강에 연화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리면 도롱이와 삿갓을 필력이고, 그물을 던지면 금빛 비늘과 옥빛 꼬리의 고기들이 멋대로 펄떡거리, 보기에다 상쾌하며 마음도 호뭇해진다. 그러다가 밤이 깊어 구름이 검어지고 하늘이 캄캄하면 사방은 아득하고 고기잡이 등불만 깜박이는데, 배 지붕에 뿌리는 빗소리는 느렸다 빨랐다 구슬프게 운다. 이 때에 배 안에 누워 아득히 먼 옛날의 蒼梧를 생각하고 湘纍를 슬퍼하노라면, 진실로 시대를 감상하는 생각이 무한히 일어나게 된다. 그뿐이겠는가! 양쪽 언덕에 꽃이 붉을 적엔 몸이 그림 속에 있는 듯하고, 가을에 潦水가 다 빠지고 물이 냉철할 적엔 배가 거울 위를 다니는 듯하며, 여름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엔 버들 밑 낚시터에 바람이 산들거리고, 겨울 북풍이 눈을 날릴 적엔 차가운 강 위에서 혼자 낚시질하여 사철 따라 낙이 없는 때가 없다.

저 현달하여 벼슬하는 사람들은 구차하게 영화에만 빠지나 나는 당하는 대로 편안하게 지내고, 곤궁하여 어부노릇하는 사람은 구차하게 이득만 노리나 나는 自適하는 데 낙을 두어 현달하거나 침체됨을 운명에 맡기고 진퇴를 오히려 시절대로 하여, 부귀 보기를 뜬 구름같이 하고, 공명 버리기를 흰 싹 버리듯하여, 스스로 形骸 밖에서 방랑하니, 어찌 시속을 따라 이름을 낚으며, 宦海에 빠져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득만 취하다가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자와 같겠는가. 이러므로 나는 벼슬을 하면서도 江湖에 뜻을 두어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여기는가?”³⁴⁾

34) 嘗一日語余曰。予之志在於漁。予知漁之樂也。夫太公聖也。吾不敢必其遇。子陵賢也。吾不敢冀其潔。携童冠侶鷗鷺。或持竹竿。或棹孤舟。隨潮上下。任其所之。沙晴縈纜。山好中流。魚肥膾鮮。舉酒相酬。至若日落月出。風微浪恬。倚船長嘯。擊楫高歌。揚素波而凌清光。浩浩乎如乘星查而上霄漢也。若夫江烟漠漠。陰霧霏霏。揚篴竽學網罟。金鮮玉尾。縱橫跳踢。足以快日而娛心也。及夜向深雲昏天晦。四顧茫茫。漁燈耿耿。雨鳴編篷疏密間作。颼颼瑟瑟。聲寒響哀。息偃舟中。神遊寥廓。懷蒼梧而弔湘纍。固有感時而遐想者矣。花明兩岸。身在畫中。潦盡寒潭。舟行鏡裏。畏日流炎。柳磯風細。朔天飛雪。寒江獨釣。四時代謝而樂無不在焉。彼達而仕者。苟冒於榮。吾則安於所遇窮而漁者。苟榮於利。吾則樂於自適。升沈任命。舒卷惟時。視富貴如浮雲。棄功名猶脫屣。以自放浪於形骸之外。豈若趨時釣名。乾沒於

太公望을 聖人이라 지칭하고, 嚴子陵을 賢人이라 지칭한 데서 그의 가치관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동자와 관자들을 이끌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삼아 이따금 낚싯대를 들고 쪽배를 노닐”하기를 회구하는 어촌 공부의 현실은 관직생활로 시종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에 걸맞게 너그럽고 솔직한 데다 우스갯소리도 좋아 하는 소탈한 성품의 소유자이면서, 청렴하며, 굵은 일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고 생사에 개의하지 않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음을 實錄에는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전의부령이 되어 옛 재상 李仁任의 시호를 荒繆이라고 정하니, 그 宗黨이 이를 갈았으나, 공부가 움직이지 않았다. 무인년에 高皇帝가 우리 나라의 辭命에 잘못이 있는 것에 노하여 글을 지은 사람인 정도전을 불렀으나, 정도전이 병을 칭탁하고 가지 않으니, 황제는 공부가 글씨를 썼다고 하여 불렀다. 공부가 아무렇지 않은 듯 길에 올라서 휘파람을 불고 시를 읊기를 태연자약하게 하여 死生을 개의하지 않았다. 마침 赦함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공부가 성품이 너그럽고 솔직하고 우스갯소리를 좋아하였으나, 청렴하고 조용하고 욕심이 적어 물건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어 세상의 推重을 받았다.³⁵⁾

어촌 공부는 비록 벼슬길을 떨쳐버리고 강호의 한 어부로 실제의 삶을 영위하지는 않았지만, 청렴하였고, 때로는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는 기상도 가진 인물이었음을 위의 글로 알 수 있다. 어촌이 즐겨 불렀던 어부사가 단순한 여흥으로의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관을 스스로 확인하는 표현 방식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宦海。輕生取利。自蹈於重淵者乎。此子所以身簪紱而志江湖。每托之於歌也。子以爲如何。
(「陽村集」 권11 <漁村記>)

- 35) 嘗任典儀副令。謚故相李仁任爲荒繆。其宗黨切齒。俯不爲動。歲戊寅 高皇帝怒我國辭命有失。徵撰文人鄭道傳。道傳托疾不行。帝謂俯寫字微之。俯怡然就道。嘯詠自若。不以死生介懷。會遇赦得還。俯性坦率好恢諧。然廉靜寡欲。與物無競。爲世所重。(『太宗實錄』 32권, 16년 10월 乙丑)

4. 漁村과 漁父歌

漁村 孔俯가 어부가를 잘 불렀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촌과 知己였던 양촌은 어촌이 노래하는 어부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양촌은 그의 글 <漁村記>에서 그가 “이따금 흥이 무르익어 어부사를 노래하면 그 소리가 맑고 깨끗하여 천지에 가득 차는데, 마치 증삼이 상송을 노래하는 것을 듣는 듯하여 사람들의 가슴 속을 유연하게 하여 마치 강호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는 그의 마음에 사욕이 없어 사물에 초탈하였기 때문에 그 소리의 나타남이 이러한 것이다.”³⁶⁾라고 극찬하고 있다. 또, 양촌은 앞서 소개한 <是日與諸公冒雨泛舟>란 시에서도 “백공의 맑은 모습 좋은 소리 지녔어라/ 탁영가 불러대니 金石을 울리는 듯(伯共瀟灑懷好音/ 高歌濯纓聲出金)”³⁷⁾이라고 읊으며 어촌의 탁영가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題漁村記後>를 써 준 삼봉도 그 글에서 “백공은 마음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또 성음에 나타내어 술잔을 들 적마다 어부사를 노래하니, 궁상도 아니요 울려도 아니지만 높고 낮은 것이 서로 응하고 절주가 화협하니 이는 아마도 자연히 나오는 것이리라.”³⁸⁾라고 어촌의 어부가를 칭찬하고 있다.

어촌이 어부가를 잘 불렀다는 것은 위의 기록으로 봐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가 어부가를 지었다는 언급은 없다. 龔巖은 자신이 산개의 대본으로 삼았던 어부가에 대해 “漁父歌兩篇 不知爲何人所作”이라고 했고, 退溪도 “長言者 凡十二章 而作者名姓無聞焉”이라고 했다. 孤山 역시 “東方古有漁父詞 未知何人所爲”라고 한 것은 이런 언급이 나온 당시에도 그것이 누구의 창작이라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전의 자료로 보아 어촌이 불렀던 그 어부가를 누가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까? 앞에서 소개한 바의 주장처럼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김영돈을 포함하여 공부의 시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창

36) 往往興酣，歌漁父詞，其聲清亮，能滿天地，粵髯聞曾參之謠商頌，使人胸次悠然，如在江湖，是其心無私累，超出物表，故其發於聲者如此夫。(權近, 『陽村集』 권11 ‘漁村記’)

37) 權近, 『陽村集』 권5.

38) 伯共 不惟樂之於心 而又發之於聲 每酒酌 歌漁父詞 非宮非商非律呂 而高下相應 節奏諧協 皆出於自然者也(鄭道傳, 『東文選』 권103 ‘題漁村記後’)

작·보완되었다고 보는 것³⁹⁾이 옳은지, 아니면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어느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고인지영을 집구하여 불렀다고 보는 것⁴⁰⁾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형대의 주장처럼 ‘증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인의 창작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창작·보완된 것’이라고 보는 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창작·보완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도 역시 그렇게 판단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양촌이 말하고 있듯이 어촌이 부르는 어부가가 “마치 증삼이 상송을 노래하는 것”⁴¹⁾같다거나, 삼봉이 말하는 바처럼 “공상도 아니요 울려도 아니지만 높고 낮은 것이 서로 응하고 절주가 화협하는”⁴²⁾ 독특함이 있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불려오면서 창작·보완된 작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보완되면서 불리어 온던 노래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공상도 아니고 울려도 아닌 것’으로 표현 될 낯선 노래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곡조가 노랫말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면 어부가의 지속적 창작·보완설은 큰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우리라고 본다.⁴³⁾

그리고, 이형대는 “공부의 노래를 직접 듣고 창화시를 남긴 이색, 정몽주, 권근, 정도전, 성석린, 이직 등을 편의상 공부그룹이라 지칭하기로 한다”⁴⁴⁾고 했는데, 여기현의 주장처럼 어느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고인지영을 집구하여 어부가를 지었다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이렇게 공부그룹으로 지칭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남긴 한시 작품이나 그 외의 언급들을 볼 때 그들이 한 데 둘러앉아 어부사 창작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하겠다. 정몽주가 지은, 義順館에 묵

39) 李亨大, 앞의 논문, 47-48면.

40) 呂基鉉, 앞의 논문, 73-74면.

41) 往往興酣。歌漁父詞。其聲清亮。能滿天地。勞勞聞曾參之謫商頌。使人胸次悠然。如在江湖。是其心無私累。超出物表。故其發於聲者如此夫。(權近, 「陽村集」 권11 ‘漁村記’)

42) 伯共 不惟樂之於心 而又發之於聲 每酒酌 歌漁父詞 非宮非商非律呂 而高下相應 節奏諧協 皆出於自然者也(鄭道傳, 『東文選』 권103 ‘題漁村記後’)

43) 물론, 가곡·시조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어진 작품이 전승되는 과정에 조금씩 변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44) 이형대, 앞의 논문, 44면.

으며 孔俯에 부친다고 한 한 수의 시를 보자.

<宿義順館寄孔俯>

驅馬悠悠到涇江	말 달려 멀리 패강에 이르러서
陪臣直欲且觀光	모신 신하 곧 바로 관광을 원하네
去家漸覺遙千里	집 떠나 점차로 천리에 아득하니
舉酒須知陋八荒	술 들며 알겠네 팔황의 액을
靺鞨水邊山疊疊	말갈 강변에 첩첩한 산
遼陽城下路茫茫	요양성 아래 길은 멀구나
夜深逆旅不成寐	밤 깊은 여관에서 잠 못 이루는데
一曲漁歌聲短長	한 가락 어부가의 길고 짧은 소리 들리네

(圃隱集)

공부그룹으로 꼽은 포은이 異域의 客舍에서 어부가를 듣고는 어촌 공부를 떠올리는 것을 볼 때, 공부그룹이라 부를 만한 어촌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부사라고 하면 '孔俯'였고 자신들은 그 공부의 어부사를 즐기는 애청자였을 뿐으로 보인다. 어촌과 같은 선상에서의 창작 가담자로 볼 만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三峰의 <題孔伯共漁父詞卷一>을 보면 어촌이 노래하는 어부사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데, 거기서 삼봉은 어부사를 감상하는 청자로서의 향유자이지 창작에 개입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 一曲에서 청자[삼봉]에게 강과 바다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一曲起我江海思), 二曲에서 청자를 푸른 이끼 낀 낚시터에 앉히며(二曲坐我蒼苔磯), 三曲에서 두둥실 띄워 갈곳을 알 수 없게 만드는데(三曲泛泛迷所之) 역할은 모두 어촌의 몫이다. 물론 가창자와 작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 여러 사람이 집구한 작품을 어촌이 독특한 창법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삼봉의 <題孔伯共漁父詞卷一>을 볼 때, 단순히 어촌의 노래 솜씨만을 칭찬한 것이기보다는 어촌이 펼치는 노랫말과 그 노래에 대한 찬사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어부가를 여러 사람이 집구하였다면, 어촌과 교유한 여러 사람 중에

서도 누구보다도 漁父歌에 가까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양촌이나 삼봉, 그리고 포은 등에게서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을 만도 한데, 그들이 지은 <漁村記>나 <題漁村記後>를 비롯한 어디에서도 그런 실마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어부가가 정밀한 詩를 지을 목적으로 集句된 것이 아니라, 漁父之趣를 高唱하기 위한 노랫말로 집구된 점을 감안한다면, 여기현이 제시한 “작품내 시공간성, 시적화자의 시각 등이 각기 다르거나 혹은 중첩되어 일관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그 작품을 여러 사람이 집구한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증거 없이 현전의 자료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부사 창작의 공은 일단 어촌 공부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⁴⁵⁾

5. 結 論

이상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하나의 시가 양식으로 명맥을 이어온 漁父詞 중 유독 『樂章歌詞』 소재의 <漁父歌>만 작자가 불분명하다. 이우성은 어촌 공부에 즐겨 부른 어부가가 『樂章歌詞』의 <漁父歌>였으리라 추정하고 그 작자를 어촌으로 보았다. 이후의 논문들이 이를 그대로 수긍하여 왔으나, 근년 어촌을 작자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하고 김영돈을 포함한 공부의 시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창작·보완되었을 것으로 보는 주장과 어촌 한 사람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고인지영을 집구하여 불렀을 것으로 보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악장가사』 <어부가>의 작자 논의의 가장 핵심에 있는 그 공부를 살핌으로써 그를 좀더 이해하고, 아울러 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고려 문사들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동

45) 그렇다면 그 창작 시기는 宋靜淑의 주장대로 어촌이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선 1376년부터 양촌이 <漁村記>를 쓴 1385년 사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송정숙, 앞의 논문, 29면.)

과 열풍이 일어난 것도, 혜심이 宋詞의 형태를 취해 <어부사>를 지은 것도 그런 영향의 결과라고 하겠다. 어촌이 어부사를 즐겨 불렀던 고려말은 1170년의 武臣亂으로부터 100년간의 무신정권 그리고 그간의 元의 침공 등으로 붕괴의 요인이 잠복해 있는 상태였고, 무신정권의 뒤를 이은 권문세족들은 대륙의 정세변화와 왜구의 침입, 국내의 불안 요인 등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시기 신진사류에 의해 수입된 중국의 理學은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일으킬 정신적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고, 많은 뛰어난 理學者들이 배출된다. 그러나 당시의 문사들은 儒·佛·道에 대한 태도가 매우 개방적이었고, 이러한 분위기가 어부사를 비롯한 당시의 문학 작품에 수용되었음을 실제의 시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부는 25세 때인 고려 禡王 2년(1376년) 과거에 합격한 이후 왕조가 바뀌어 태종 16년 그가卒할 때까지도 줄곧 환로에 있었다. 공부는 도교에 남다른 조예가 있었는데, 조선조 태종이 祈雨하기 위해 어촌을 여러 차례 부른 일을 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修真의 일을 묻기도 위해, 父喪의 喪制를 마치지도 않은 어촌에게 탈상하고 알현토록 명하기도 하였다.

이런 어촌이 麗末 鮮初의 대표적 儒者들과 두터운 교분을 맺기도 했다. 특히 양촌 권근과는 각별한 우의를 나누었음을 양촌이 지은 漁村의 號記인 <漁村記>로 짐작할 수 있다. 그 외 어촌과 관련된 몇 편의 시를 남기기도 했다. <題漁村記後>와 공백공의 漁父詞卷를¹¹⁾에 題한 시를 쓴 삼봉 정도전도 어촌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이 분명하다.

이들의 글에는 “갈매기와 백로를 벗삼아 이따금 낚싯대를 들고 쪽배를 노닐”하기를 회구하는 어촌의 인생관이 뚜렷이 표명되어 있다. 그는 그 자신이 엄자릉처럼 개걸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했듯이 평생 환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너그럽고 청렴하며, 굵은 일에는 타협하지 않고, 생사에 개의하지 않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 세상의 推重을 받았음을 실록에는 기술하고 있다. 어촌이 즐겨 불렀던 어부사는 단순한 여흥으로의 노래가 아니라 이런 자신의 인생관을 스스로 확인하는 표현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촌이 어부사를 잘 불렀음은 분명하다. 양촌이나 삼봉의 글과 시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어촌이 어부사를 지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다. 그렇다면 현전의 자료로 그 어부사를 누가 지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

적인 판단일까?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니 김영돈을 포함하여 공부의 시기에 이르는 동안 지속적으로 창작·보완되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지속적으로 창작·보완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도 역시 그렇게 판단할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치 증삼이 상송을 노래하는 것 같다가, 궁상도 아니요 올려도 아니지만 높고 낮은 것이 서로 웅하고 절주가 화협하는 독특함이 있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불려오면서 창작·보완된 작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보완되면서 불리어 온던 노래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궁상도 아니요 올려도 아닌 것’으로 표현 될 낮은 노래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고인지영을 집구하여 어부가를 지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았다. 만약 어느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여 어부사를 함께 집구하여 지었다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이형대가 공부그룹으로 명명한 가까운 사람들일 텐데, 그의 어부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양촌이나 삼봉 또는 포은의 글이나 시에서는 어촌과 같이 어울려 어부가를 지었다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글이나 시가 보여주는 것은 어촌이 펼치는 어부가에 대한 일방의 칭찬이나 감탄일 뿐이지, 같이 어부가 창작자로서 동참한 것으로 볼 소지는 별로 없다.

게다가 어부가가 정밀한 詩를 지을 목적으로 集句된 것이 아니라, 漁父之趣를 高唱하기 위한 노랫말로 집구된 점을 감안한다면, 작품내 시공간성, 시적화자의 시각 등이 각기 다르거나 혹은 중첩되어 일관되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그 작품이 여러 사람이 집구한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현전의 자료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어부사 창작의 공은 일단 어촌 공부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參 考 文 獻

『高麗史』(恭愍王朝~恭讓王朝)

『朝鮮王朝實錄』(太祖朝~太宗朝)

權近, 『국역 양촌집』 ①~④, 민족문화추진회 편, 1990.

李穡, 『牧隱集』, 韓國思想大全集 5, 良友堂, 1988.

鄭道傳, 『국역 삼봉집』 ①②, 민족문화추진회 편, 1990

崔滋, 『補閑集』, 韓國思想大全集 5, 良友堂, 1988.

權寧徹, 『瓶窩李衡祥研究』(韓國研究叢書 第37輯), 韓國研究院, 1978.

金相洪, 韓國의 集句詩 研究, 『漢文學論集』(檀國漢文學會) 제5집, 1987.

박경주, 『한문가요연구』, 太學社, 1998.

朴奎洪, 漁父詞의 形成 研究, 『時調學論叢』 제15집, 韓國時調學會刊, 1999,
69-91면.

宋靜淑, 漁父歌系 詩歌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呂基鈺, 『古典詩歌의 表象性』, 도서출판 월인, 1999.

吳熊和 著·李鴻鎮 譯, 『唐宋詞通論』, 啓明大學校 出版部, 1991.

韋旭昇 著, 李海山·禹快濟 共譯, 『韓國文學에 끼친 中國文學의 影響』, 亞細亞
文化社, 1994.

尹榮玉, <漁父詞> 研究, 『民族文化論叢』제2·3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李佑成, 高麗末·李朝初의 漁父歌, 『성대논문집』 9집, 1964.

李在秀, 『尹孤山研究』, 學友社, 1958.

李亨大, 「漁父形象의 詩歌史的 展開와 世界認識」,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7.

張師助, 韓國音樂史, 『韓國文化史大系Ⅶ』,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2(三版).

車柱環, 『中國詞文學論考』,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改訂版).